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날	1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10		30 SBS 뉴스
00 여성공감 55 바른말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세상의 모든 다큐 위성고고학, 고대 이집트를 발견하다 1부	11	00 아름다운 콘서트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10 월화드라마 〈포세이돈〉	12	00 MBC 뉴스 15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사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1	05 통일전망대 45 지구촌 리포트(재)	30 영광의 도전 내일은 챔피언
00 KBS 뉴스 10 KBS 중계석 KBS국악관현악단 어린이 음악회 삼신 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30 체험! 삶의 현장(재)	2	10 시추에이션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55 MBC네트워크 특선 〈착한 기업, 지역의 운명을 가르다〉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0 제19회 서울 프라이즈 수상작 〈지울 수 없는 기억〉	00 KBS 뉴스타임 05 로봇 찌빠 35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3	50 MBC 뉴스	1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00 TV 유치원 30 부루와 숲속 친구들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마법천자문	00 안녕 자두야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5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뉴스퍼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20 2011 한국 뮤지컬대상 시상식(생중계)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6	00 6시 뉴스 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45 스타 인생극장 〈김태원〉	7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20 일일드라마 〈내딸 꽃님이〉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위기탈출 넘버원	8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며느리〉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생활의 달인
00 KBS 뉴스9	55 월화 드라마 〈브레인〉 1~2회	9	55 MBC월화특별기획 〈계백〉	55 월화 드라마 〈천일의 약속〉
00 가요무대		10		
00 KBS 뉴스라인 40 집중인터뷰 이사람		11	15 행복한 문화마을 꿈꾸리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25 KBS 뉴스 35 특선다큐 지구촌 최후의 오지들 〈모로코〉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12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CJ 슈퍼레이스 최종전	25 나이트라인 45 전통문화의 향기

EBS

06:00 희망풍경
06:30 신나는 인생 5678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7:10 정글북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08:35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8:50 우당탕탕 아이쿠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0 코코몽2
09:25 꼬마거북 프랭클린
09:40 팅가팅가 이야기
10:00 최고의 요리비결 〈한복선의 간편하게 즐기는 맛있는 공식〉
10:30 60분 부모
11:30 세계의 교육현장
12:00 EBS 정오 뉴스
12:10 TV 평생대학 〈역사 이야기〉
13:00 세계테마기행 〈아프리카 베냉 1부〉
13:40 신나는 인생 5678(재)
14:10 EBS 다큐 프라임-교육기획
15: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15:30 꾸러기 상상여행
15:55 딩동댕 유치원(재)
16: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6: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6:4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55 코코몽2(재)
17:15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30 캐니멀
17:45 폴리와 함께 교통안전(재)
18:00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1
18:05 우당탕탕 아이쿠
18:15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2
18:20 생물이 생생!
18:30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3
18:35 미술 탐험대
18:45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4
18:50 와글와글 친구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정글북
19:35 트랜스포머 프라임
20:00 동물일기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군산 1 〈빼앗긴 들에도 봄은〉
21:50 다큐 프라임-교육기획
22:40 EBS 기획특강
23:20 직업의 세계-일인자
00:05 EBS 스페이스-공감

EBS플러스1

04:10 EBS 포스 〈김경한의 적분과 통계〉
05:00 EBS 기본과 특별한 〈곽정원의 수학(상)〉
05:50 〃 〈조연의 한국사〉
06:40 EBS포스〈이하영의 수학Ⅰ〉
07:30 EBS 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08:20 EBS 탐스런 〈박정연의 한국지리〉
09:10 〃 〈이우현의 정치〉
10:00 선생님 우리 선생님
10:30 TV입학사정관
11:20 EBS 내신 6감 〈정승제의 수학(상)〉
12:10 EBS포스〈이은주의 수학Ⅱ〉
13:00 EBS 기본과 특별한 〈박정연의 사회(지리)〉
14:00 EBS포스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15:00 EBS 탐스런 〈고재근의 물리Ⅰ〉
16:00 〃 〈박정호의 물리Ⅱ〉
17:00 EBS 기본과 특별한 〈곽정원의 수학(상)〉
18:00 〃 〈조연의 한국사〉
19:00 EBS 탐스런 〈박정연의 한국지리〉
20:00 〃 〈이우현의 정치〉
21:00 EBS 포스〈이하영의 수학Ⅰ〉

EBS플러스2

08:00 9급공무원시험대비강좌
08:30 초등수학-매스 트레이닝
09:00 EBS TV 중3 〈국어〉
09:40 〃 〈수학3-2〉
10:2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국어〉
11:00 EBS TV 중1 〈영어〉
11:50 EBS TV 중2 〈영어〉
12:30 〃 〈수학2-2〉
13:1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과학〉
13:50 EBS TV 중3 〈과학〉
14:30 초등 5학년 영어 Fly High
14:50 EBS 클립뱅크
15:10 생물이 생생!
15:20 초등 기말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국어 3-2〉
15:50 〃 〈국어4-2〉
16:20 〃 〈국어5-2〉
16:50 〃 〈국어6-2〉
17:20 초등 수학-매스 트레이닝
17:50 TV 중1 〈문학1〉
18:30 〃 〈영어〉
19:10 중1 퍼펙트 체크업 〈수학 1-2〉
19:50 TV 중2 〈영어〉
20:30 〃 〈수학 2-2〉
21:10 TV 중3 〈국어〉
21:50 〃 〈수학 3-2〉
22:30 중3 퍼펙트 체크업 〈국어〉

즐기는 자의 기적… 울랄라 세션 '슈퍼스타K3' 우승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3'에서 울랄라 세션(임윤택 31, 박승일 30, 김명훈 28, 박광선 21)이 우승을 차지했다.

울랄라 세션은 11일 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7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된 결승전에서 사전 온라인 투표(5%)와 심사위원 점수(35%), 시청자 문자 투표(60%)를 합산한 종합 평가에서 버스커 버스커를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두 팀의 치열한 승부로 시청자 문자 투표는 시즌 2 결승보다 약 30만 건이 많은 170만 건에 달했다.

'슈퍼스타K 3'에서 울랄라 세션(임윤택 31·박승일 30·김명훈 28·박광선 21)의 우승은 경쟁의 구도에서 보면 놀라울 게 없다.

실력과 태도, 거기다 감동적인 휴먼스토리까지 갖춘 그들의 우승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10년이 넘는 무명 생활도, 임윤택의 위암 투병도 무대 위에서는 모두 잊혀졌다.

비트에 맞춰 핀 조명이 하나씩 켜지면서 '달의 몰락'을 평키한 리듬으로 뽑아냈던 첫 생방송 무대부터 지난 11일 '너와 함께'로 대미를 장식할 때까지 그들의 무대에서 긴장감을 찾아보기란 힘들었다.

최고의 무대로 꼽히는 '미인'과 '스윙 베이비'는 단순히 노래와 춤뿐 아니라 연기까지 어우러진 한 편의 뮤지컬이었다.

군 복무시절 뮤지컬 연출에 참여할 정도로 노련한 임윤택의 리더십과 멤버들의 호흡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무대였다.

이들의 완벽에 가까운 무대에는 10년 넘게 쌓아온 우정과 실력이 녹아 있었다.

이날 울랄라 세션의 우승을 끝으로 '슈퍼스타K 3'는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슈퍼스타K 3'는 제작비 100억원, 오디션 신청자 197만명 등 숱한 화제를 뿌리며 평균 12%대의 시청률을 기록, 지상파와 케이블을 통틀어 동시간대 1위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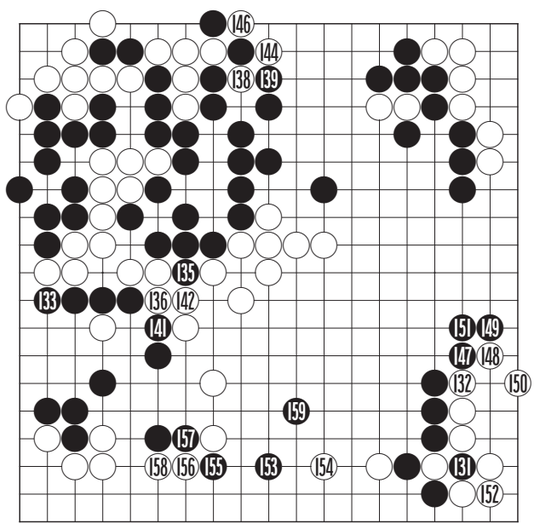
방송 기간 편집 논란이 불거지고 화제성이 시즌 2에 못 미친다는 평을 들었으나 그룹의 합류로 음악적인 다양성에서는 시즌2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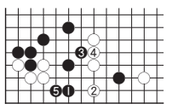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무신경한 승부수'

4회전 1국 6보(131~159)

白 정장효 5단 (포스코) 黑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참고도〉

흑 131로 패를 때려냈으나 백이 132로 밀고 나오니 어쩐지 뒷북을 치고 있는 느낌이다. 이때 조영배 5단은 갑자기 좌변을 흑 133으로 막아갔는데 이 수가 또 엉뚱했다. 흑 대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은 끝내기로는 작은 곳이었다. 이 수로는 일단 147자리에 젖혀 끝까지 우하귀 백을 물고 늘어질 자리였다.

백 134부터 패를 주고받다가 백이 상변에 144로 패를 써왔을 때 조영배 5단은 흑 145로 패를 잇고 말았는데 이 수로도 일단은 147자리에 젖혀 백을 크게 추궁해야 했다. 나중에야 147로 젖혔으나 백 148부터 152까지 백이 깨끗하게 살고 보니 흑이 한 것이 없다.

흑 153으로 쳐들어간 것이 마지막 승부처였는데 흑 155가 무신경한 수로 백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이 수로는 먼저 '참고도'의 흑 1로 뛰고 백 2로 받으면 3을 선수한 다음 5로 귀를 접수한다. 또 백 2로 귀를 살면 알기 쉽게 넘어가서 크게 이득이다. 백 158로 넘어가 백이 편한 국면이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4일(음 10월 19일 癸酉)

子 36년생 보살펴 줘야할 사람이 생긴다. 48년생 주변의 달콤한 말을 과신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60년생 자신있더라도 여유를 갖고 신중하라. 72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84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거리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4, 30

丑 37년생 새로운 일을 계획하라. 49년생 배움이란 평생 학습이니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라. 61년생 지인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심적 안정을 찾게 된다. 73년생 다수인의 의혹을 사지 않아야 한다. 85년생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23, 54

寅 38년생 기쁜 마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복 받을 일이다. 50년생 다투면 손재요 양보하면 득이 된다. 62년생 가까운 이에게 바가지 쓸 수 있다. 74년생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행운의 숫자 : 77, 04

卯 39년생 자신과 처지가 다르다고 굳이 험담할 필요는 없다. 51년생 좋은 일도 있고 흉한 일도 있다. 63년생 사생활이 노출되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비화 될 수 있다. 75년생 큰 성공의 기틀이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55, 19

辰 40년생 수하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불편해진다. 52년생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할 때 능률이 극대화된다. 64년생 생각지도 않은 횡재를 할 수 있다. 76년생 다양한 관점에서 건강을 챙기자. 행운의 숫자 : 21, 26

巳 41년생 어감의 차이가 있음을 알라. 53년생 가정의 우환과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65년생 다방면으로 처리할 일이 많으니 망각하지 않도록 하자. 77년생 겉을 정리 정돈하고 단장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2, 61

午 42년생 실수하면 의외의 손실이 크다. 54년생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한다면 크게 길하리라. 66년생 큰 버팀목이 되었던 인물의 신상에 변화가 올 수 있다. 78년생 대인 관계를 원만히 하라. 행운의 숫자 : 01, 36

未 43년생 모방하지 말고 창안하라. 55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득리한다. 67년생 희소성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수록 삶에 대해 도움이 된다. 79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 간의 변동으로 걱정은 있다. 행운의 숫자 : 81, 90

申 44년생 성공자의 후광을 입을 수 있다. 56년생 변화가 생기니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68년생 자녀의 영광으로 인한 기쁨이 매우 크다. 80년생 여러 방면으로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0, 65

酉 45년생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57년생 불화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논의하라. 69년생 못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81년생 정은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행운의 숫자 : 06, 40

戌 46년생 처지와 입장이 달라지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58년생 이웃을 살펴보라. 70년생 배우자의 소중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82년생 주변의 기만과 허황된 문서를 조심해야 손실을 피한다. 행운의 숫자 : 83, 15

亥 47년생 허울 좋은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실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59년생 자신을 낮춰라. 71년생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공평무사한 대인 관계를 펴라. 83년생 집안의 안정은 지속되나 참을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7, 68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첫째/ 첫 번째

저희 목욕탕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쉽니다.
저희 미용실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은 쉽니다.

'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고, '번째'는 순서와 횟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첫째'에 '째'는 차례를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번'에 붙으면 반복한 행위와 차례를 나타내고, '개'에 붙으면 헤아린 숫자의 차례를 나타냅니다.

- 첫째, 행복해야 합니다.
- 나의 이번 제주도 방문은 두 번째 방문이다.
- 철수는 빵을 세 개째 먹고 있다.

'첫 번째'의 '첫'은 '맨 처음의'라는 관형사이고, '번째'는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번째'는 '번'에 접미사 '째'가 붙은 것으로서 '번'에는 횟수의 개념이 들어 있고, '째'에는 순서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위의 '나의 이번 제주도 방문은 두 번째 방문이다'에서처럼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반복한 행위의 차례를 세기 위해서 '번째'를 씁니다.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굿모닝 잉글리쉬

Could I get a discount?
할인이 됩니까?

A : Excuse me, how much for one of these?
B : Hmm, those are $25 each.
A : Okay, say I was to buy four. Could I get a discount?
B : Well, I could offer you maybe 10% off.
A : Oh. I was hoping to get one free.
B : This one I'd better check with the manager. Could you give me a second?

A : 여보세요, 여기 한 개는 얼마죠?
B : 음, 각각 25불인데요.
A : 그렇군요. 만약 4개를 산다면, 할인이 됩니까?
B : 10센트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A : 오우, 저는 한 개를 공짜로 얻고 싶은데요.
B : 이 건은 매니져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 만약 10% 정도 할인을 해드린다고 하면, 더 구입하시겠습니까?
= If I offer you 10% discount, say, 10% off, will you buy more?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니하오 쭝구워

省油灯 shěng yóudēng
기름을 아껴주는 도자기

省油灯은 고대 중국 도자기 유물의 한 종류로 기름을 아껴 쓸 수 있는 등불입니다. 唐대와 宋대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접시 두 개를 포갠 모양으로 기름이 있는 곳과 별도로 찬물을 붓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기름 등잔과 별도로 찬물을 흐르게 함은 기름이 가열되어 증발되는 것을 막아 기름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름(油)을 아껴주는(省) 등(灯)'이라는 이 말이 관용어로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제 분수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她厉害着呢, 可不是个省油灯。Tā lìhàizhene, kěbú ushì ge shěngyóudēng. 재는 참 대단해. 저러고도 순종하면서 산다닌까"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邪魔だから、片付けてくれ。
방해되니까 치워줘

A : これは何だい。
B : 日本へ送る荷物です。
A : 邪魔だから、片付けてくれ。
B : はい、分かりました。すぐ片付けます。

A : 이거 뭐야.
B : 일본에 보낼 짐입니다.
A : 방해되니까 치워줘.
B : 예 알겠습니다. 곧 치우겠습니다.

[문법정리]
※~てくれ「~해줘 / ~해주게」
⇒ 「~てください」의 보통 형으로서 남성들이 친한 동료나 손아래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
▸ 荷物を運ぶから、手伝ってくれ。
= 짐을 운반할 테니 도와줘
▸ 今行くから、ちょっと待ってくれ。
= 지금 갈 테니까 잠깐 기다려 줘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